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19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국가보훈부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2
 - 국가보훈부 소관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2
 - 국가보훈부 소관
 - 금융위원회 소관

(16시39분 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제4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회의 공개는 여기까지 하겠으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라. 금융위원회 소관
-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 가. 국가보훈부 소관
- 나. 금융위원회 소관

○소위원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주부터 3일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였고 보다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김남근, 유영하 두 분의 각 당 대표 위원님들께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별도의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논의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분 위원님께서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신 사업이 있어 이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합의가 됐는데 정부 측에서 제출하신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위원 김남근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 속에서 건축 설계를 하는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소소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부지를 독립기념관 옆에 확보를 했고 독립기념관 부지에 건축을 한다는 그런 의견을 보훈부에서 제출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소위에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소위에서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설계를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 원안대로 채택을 하기로 하고 만일 독립기념관 부지 내에 건축하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결의에 대해서는 예산소위에서 결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훈부 측,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독립기념관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좀 보태 드리면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후보 잠정지로 정한 데가 겨례의집 왼쪽 부지, 평수는 한 5000평 정도 되는 부지에 일단 후보 잠정지로 정하신 거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 명칭도 지난번에 국내독립운동기념관에서 가칭 광복80주년기념관으로 명칭을 바꿔서 하신 거고,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광복80주년특별관으로 바꿨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예전에 저희가 국정감사나 다른 현안질의에서 가칭 국내독립운동기념관이 마치 수도권에서 부지가 물색돼 있고, 그런데 어느 부지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설게 예산이 들어오니까 거부를 했던 거고, 어저께 기조실장을 통해서 그러면 이 기념관을 목천 독립기념관에 건립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언질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소위에서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게 된 거거든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도 이제 소소위에서 정리가 된 내용을 보고를 받고 일부 보훈부와의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대의견을 2개 정도 달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즉 지금 얘기하신 광복80주년특별관이라는 것을 구성할 때 구성 내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독립기념관의 운영 및 전시 절차를 준수한다는 부대의견 하나와 그리고 특정 사관에 입각한 명칭,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국내독립운동기념관 혹은 국내민족독립기념관과 같은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차관님, 지금 계획표를 받아 보니까 자문단을 구해서 공모지도 더 할 것 아니겠어요, 절차를 밟으셔서?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기념관 명칭도 저는 공모를 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명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면 다른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래서 김용만 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것은 저희가 당연히 수용인데, 두 번째 명칭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아직까지 따로 정해진 것도 없고, 지금 가칭이고요. 당연히 국민들한테 저희가 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부대의견에 딱 요거 요거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좀 수용이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의견을 다 저희는 분명히 잘 수렴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김용만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를 드린 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상식선상에서도 이해가 될 만한 것이, 독립기념관 안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립기념관 안에 국내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는 어찌 됐든 만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독립기념관 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얘기가 됐던 국내독립운동기념관 그리고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독립기념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명칭을 얘기드리려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어떤 특정 기념관 명칭을 부대의견에 지금 달아 놓는 거는……

어쨌든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명칭을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김용만 위원** 그렇다고 하면 특정 사관에 입각한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그에 맞는 수준의 명칭을 정한다라는 정도의 부대의견은 괜찮으실까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뒤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정한다 이렇게 정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만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부대의견을……

정리가 되셨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정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리고 이게 본래 현충시설건립 사업 내의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이라는 비목에서 독립기념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내 활성화 사업비로 비목이 변경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그렇게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柳榮夏 위원** 맞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비목을 그렇게 변경을 하고 좀 전에 말한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걸로 해서 가칭 광복80주년특별관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제시한 예산 금액대로 저희가 기본조사 설계비 조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안건 이외에 다르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없지요, 김남근 위원님과 유영하 위원님? 이미 다……

○**김남근 위원** 의견 없습니다.

○**柳榮夏 위원** 나머지 위원님들도 또 의견이 있을 테니까요.

○**소위원장 이정문**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 연 3일에 걸쳐 가지고 정무위 예산소위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소소위에서 마무리 정리를 다 해 주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저는 지금 좀 재고돼야 될 부분의 예산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실의 청년플랫폼사업 14억 8800만 원이 지금 현재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국무총리 국정활동 1억 3000이 삭감됐는데 아마 특활비가 3000이고 업추비가 1억인 것 같아요. 업추비를 삭감한 거는 전 상임위 통해서 아마 정무위가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판단을 해 봐 주시지요. 특경비·특활비는 어쨌든 일부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고 그랬지만 업추비를 이렇게 삭감한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위원** 지금……

○**김상훈 위원** 잠깐,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려야 돼요.

그다음에 역시 국조실의 경비 중에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관련 예산인데 당정협의 예산 삭감 또 민정실 신규 내역사업 삭감 이 부분도 좀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예산이 260억 삭감됐는데 가능하면 이 부분은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자금이기 때문에 한번 재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청년도약계좌인데 청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정무위 야당 위원님들 되게 박하게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고.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2억 5000 삭감 이것도 삭감 이유가 너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어디요, 지금 제가 좀……

○**김상훈 위원** 여기는 금융위.

금감원의 예산지출명세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금융위의 경비를 깎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판단해 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신보 일반회계 전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정무위 결산 심사 때 대환보증사업 관련 예산을 사업 종료, 34년 이후에 국고 반납을 하도록 우리 정무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걸 소소위에서 300억을 국고에 반납하는 걸로, 올해 300억 반납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게 정무위 결산심사 때 결정이 난 사항을 소위에서 뒤집어 가지고 지금 300억 국고 반납하라는 게 이야기가 되는 건지.

또 우리 정무위 말고 산중위에서 역시 신보 관련 일반회계 예산 400억이 일단 현재 전액 삭감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정무위 300 산중위 400, 700억이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예산 1조 원이 감축이 되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재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역시 금융위의 원전산업성장펀드, 정부안으로 400억이 제출되었는데 소소위에서 50억 감액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면 좀 정부안대로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혁신성장펀드, 혁신성장펀드는 소소위에서 전체 405억을 감액했는데 여기 보면 206억까지는…… 238억입니까?

○**柳榮夏 위원** 238억.

○**김상훈 위원** 238억은 일단 금융위에서도 감액 동의를 했는데 그중에 167억은 혁신성장펀드와는 사업 성격 자체가 다른 구조개선혁신펀드로부터 투자 회수인데 이것까지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정부 측이 삭감 동의한 238억만 삭감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류가 다른 예산까지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한 여덟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요?

○**김용만 위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8개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신경이 쓰이는 거나 챙기고 싶은 예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소위라는 곳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려 가면서 정한 것에 있어서 다시 재고를 하는 것을 각 위원별로 다 얘기를 하면 아마 다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 저도 다시 의견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고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소소위에서 기준안을 잡았던 건 이겁니다. 특히 지금 세수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의 월급 반납 또 일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부가 어렵고 세수는 결손됐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업무추진비는 기본적으로 조금 삭감하자는 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다만 총리실의 업무추진비 삭감에 대해서는 의견 절충이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특활비에서 일부를 깎고 업추비를 최대한 1억을 삭감하는 걸로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이 쓰는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1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비나 홍보비, 전시성 행정비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 관련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도 상식선에서 감액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펀드 문제는 저희가 반도체펀드는 다 원안을 고수했고요. 원전펀드를 저희가 산업은행이 출자한 400억 중에 50억을 감액했던 것은 정부가 70% 금액의 범위를 좀 지켜 줬으면 싶어서,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50억을 감액하면 원래 한수원이 괜찮으면 한수원에서 300억에서 조금 더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민간 투자에서 한 50억 정도를 더 받아 보는 방법이 어떻겠냐 했던 거고요. 혁신성장펀드의 지금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167억 원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왜 3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줬냐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눴지마는 지금 정부 재정 상태가 괜찮았으면 저희들이 300억을 유보를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 먼저 잉여자금이 있으면 돌려서 정부가 쓰게끔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했던 거고요. 저희가 합의는 했지만 총리실의 업무추진비 특히 총리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운영비하고 구축비가 있는데 지금 1차 구축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1차 구축이 돼서 구동이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실적이 있냐에 따라서 2차 구축비가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예산을 확보하되 1년을 순연하자,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늘 세수가 결손되고 부족하다 그러면서 꼭 올해만 이걸 예산 확보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처음에 원안은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삭감을 했는데 총리실의 입장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그러면 1억을 예산 항목을 확보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기본적인 구축비에 대한 설계 예산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구축이 되고 나면 아마 다음 2차 구축은 챗GPT로 해서 쌍방 소통으로 하는 걸로 만드시겠다, 지금도 꼭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 합리성이 있다 그러면 당장 지금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에 올립니다. 그리고 정부가 세수가 부족하지 않고 잉여 세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지요. 지금 권익위 같은 경우는 컴퓨터가 9년이 됐습니다. 9년이 돼서 그게 구동이 안 되고 내년엔 윈도우11이 되면 호환이 안 돼서 업무가 안 된다 그러는 것 312대를 바꾸는 것도 저희가 오히려 양해를 구해서 32대를 깎고 280대를 확보시켜 준 겁니다. 이런 급한 사업에도 저희가 돈을 배정을 못 했는데 과연 총리실의 그 예산이 지금 꼭 안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십시오.

○김용만 위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유영하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소소위에서 말씀을 주셨던, 김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자리에서 결국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소위가 내린 결정을 존중을 하고 진행을 할지 아니면 진짜 여기 계신 개별 위원님들끼리 갖고 계신 생각들을 다시 취합해서 다시 한번 소소위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소소위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의견은 김남근 위원님이랑 제가 했지마는 또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숙고 시간을 가지시는 건 괜찮은데 하나 제가 아쉽게 설명하는 것은, 총리의 업추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 외에는 저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남근 위원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 처음에 이걸 보류하고 소소위로 넘길 때도 그 쟁점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했었고 또 소소위 논의할 때도 말씀하신 게 대부분 다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이어 가지고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을 좀 소소위 회의에 들어오도록 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시도록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듣는 절차도 다 거쳤고, 필요하면 그분들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좀 거쳐 가지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소소위에서 예결위에 의견을 올리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업추비는 국무총리님 업추비만 이렇게 삭감의견을 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80조나 세수가 펑크나고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행정부부터 좀 적극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감내하기로 했다는 것들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장관인 경우에는 20%, 차관인 경우에, 1급인 경우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있어서도 업추비를 정부 부처에서 정리해 오셨는데 상대적으로 업추비가 높은 부서가 있고 업추비가 낮은 부서도 있고 그래서 업추비가 낮은 부서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걸 줄이는 과정들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국무총리님의 업추비만 삭감한 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균형 속에서 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업추비의 감액이 없었던 부서는 없었고 전부 다 반영해서 했고.

그다음에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에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1년이라도 연기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은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무총리실에서의 청년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1차 구축 사업들이 내년 초에 끝나고 1차 구축 사업에 따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다음에 1차 구축 사업들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는 국무총리실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해서 했다.

그런데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바로 2026년 예산에 그 결과를 보고 2차 구축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일부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1억 예산도 반영하고, 아무튼 그런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소소위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훈 위원 우선 금융위원회의 펀드 관계는 한번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물론 소소위를 진행하다 보면 결단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부처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때도 있지만 소소위가 내린 결정이 다 합리적이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고를 요청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금융위원회 출석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다음에 업추비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국무총리실 업추비를 손대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업추비를 이렇게 삭감한 데가 다른 상임위에 있나, 제가 그걸 한번 좀 반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정무위의 야당 위원님께서 삭감 베이스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깔고 여러 항목을 삭감하시는데, 다 좋아요. 좋지만 삭감에 동의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없는 항목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단 금융위원회 설명 먼저 한번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금융위원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펀드 두 가지 관련이랑 아까 신용보증기금 전출하는 부분 관련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소위에 참석을, 저희가 설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안별로 참석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성장펀드랑 원전펀드 관련해서 저희 소소위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혁신성장펀드 관련해서는 기존 펀드에서 회수된 재원을 활용하자는 이슈였는데 400억 원 중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수용한 건 238억입니다. 238억은 비슷한 종류의 펀드에서 올해 8월까지 회수가 확정된 금액을 저희가 활용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난 소위에서 저희가 논의가 되었는데 지금 소소위에서 보니까 추가적으로 167억 원을 활용하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업 성격이 완전히 다른 펀드로부터의 투자 회수액입니다. 비슷한 펀드, 혁신성장펀드랑 비슷한 펀드에서 회수가 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구조개선혁신펀드로서 성격이 완전히 다른 펀드입니다. 성격이 다른 펀드인데 회수액을 여기다 쓰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산은에서도 사실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같은 펀드는, 비슷한 펀드는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때 동의했던 238억 금액은 괜찮은데 추가적으로 완전히 다른 펀드에서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수용이 어렵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전산업펀드 관련해서도 저희가 기회가 없었는데 원전산업펀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주로 산업부 소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업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전산업이 있는데 이미 여야 합의로 정부안보다 전부 다 증액을 해서 합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랑 비슷하게 이 부분도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깎아서 하는 게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다, 적어도 다른 원전산업 관련된 사업과 전혀 보조가 맞지 않는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00억 원 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미 이 부분은 올해 8월에 정무위를 했었습니다. 결산소위에서 이미 같은 문제를 정확히 논의를 하고서 34년에 사업 종료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요. 지금은 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대위변제가 필요없지만 중간에 언제 대위변제가 필요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같은 논의를 해서 이미 올해 8월에 정무위 결산소위에서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2034년 이후에 반납하는 걸로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인데 또다시 논의를 하셔서 반납을 하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위변제라는 게 이게 34년 종료 사업인데 충분히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재원을 반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여튼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미 정무위에서 몇 달 전에 의결을 한 사항인데 또 여기서 바꾸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자산취득비……

○**김용만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자산취득비, 공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그래서 사무집기, 소프트웨어, 컴퓨터 인쇄하는 것, 책자, 문구, 복사용품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2억 5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주 필요한 기본경비인데 이 부분에서 삭감하는 건 무리가 많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전문위원님, 펀드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소위에서 405억 중에 238억은 금융위가 동의를 하였고 그다음에 167억에 대해서는 이게 구조혁신펀드로부터 회수된 금액이기 때문에 유사한 분야에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 정부 펀드로 출자를 해 준 다음에 회수가 되면 그 펀드 회수액은 꼬리표가 없어집니다. 그거는 원래 출자를 해 줬으니까 감자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감자를 하게 되면 산업은행의 대외신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감자를 안 하고 회수된 재원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그 용도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구조개선혁신펀드에서 회수된 재원도 다 같이 혁신성장펀드로 넣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지금 논의가 이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을 수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 정회한 후에 잠깐 저희가 따로 말씀을 나눈 후에 이거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10분 너무 짧지 않나.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5시 10분이니까 5시 반에 다시 개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한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238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부대의견으로 구조개혁펀드에서 회수된 167억을 혁신성장펀드에 산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예결위에서 검토한다 이렇게 다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정문 예, 부대의견으로……

○柳榮夏 위원 동의합니다.

○김남근 위원 그다음에 대환보증 대위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으로 출연받은 금액의 이자수익 600억에 대해서는 국고 반환 여부 및 규모를 예결위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소위원장 이정문 그렇게 부대의견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셨습니까?

○김남근 위원 예.

○柳榮夏 위원 총리 업추비 얘기하셔야지요.

○김남근 위원 총리 업추비는 유명하 위원님이 하시지요, 거의 목숨 거신 것 같은데.

○柳榮夏 위원 국조실 국무총리 국정활동 수행비 중에서 저희가 업추비 9억 6900 중에서 6900만 원을 삭감하고 9억은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6900만 원 삭감하고……

○柳榮夏 위원 9억 원은 살리는 것으로……

○이인영 위원 1억 삭감이 아니라 6900 삭감이라는……

○柳榮夏 위원 아니, 특활비가 3000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놔두고…… 특활비가 3000이 삭감돼 있으니까.

○김남근 위원 그러니까 업추비 1억 삭감하기로 한 것을 6900 삭감하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인영 위원 그렇게 확인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지금 이 논의 이외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장님, 국가보훈부차관입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아까 가칭 광복80주년특별관 관련해서 제가 부대의견에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특별관의 명칭을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위당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앞에 김용만 위원께서 다른 사관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저는 그 의견을 드렸는데.

○소위원장 이정문 어떻게 됐나요?

○전문위원 최기도 부대의견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가칭 광복80주년특별관의 제8관의 명칭을 특정 사관에 입각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아까 말씀이 특정 사관에 입각하지 않을 것 그리고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을 말씀하셔서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柳榮夏 위원 특정 사관이, 뭐 그게 필요하나?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결정한다’ 그 문구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柳榮夏 위원 김 위원님, 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것은 명칭……

○김상훈 위원 특정 사관 이념이라는 게 꼭 진영 싸움 같아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국가 예산인데.

○柳榮夏 위원 그래서 느낌이 조금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명칭을 공모한다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김용만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결정한다로……

○김현정 위원 저도 의견 하나만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예.

○김현정 위원 보훈부 예산 중에 인건비 관련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그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여야 합의로 최저임금에 맞춰서 좀 올리자라고 했었는데 같이 삭감하면서 다 삭감하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보훈부 내에서의 방안을 좀 강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예산 관련된 것은 끝났으니까……

○柳榮夏 위원 김 위원님, 아마 증액 부분이 그때 논의가 됐었는데 보훈부 예산을 검토하면서 증액 부분이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돼서 국가 세수결손 때문에 저희가 전액 안 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들 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부 등 6개 기관의 2025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도 국가보훈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경미한 자구 및 숫자 등의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등 심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각 의원실 보좌직원들과 각 정당의 전문위원 또 정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의정기록과 그리고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남근 김상훈 김용만 김현정 유영하 이인영 이정문

○출장 위원(1인)

김재섭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종문

총무기획관 노혜원

청년정책협력관 김준민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박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

경영지원본부장 한영민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제대군인국장 김진수

정책기획관 박진수

보훈문화정책관 김석기

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보훈의료심의관 한상균

보훈단체협력관 남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

기획조정관 전성복

경쟁정책국장 신동열

소비자정책국장 박세민

심판관리관 안병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부패방지국장 김남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기획조정관 유영준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금융정책국장 신진창

금융산업국장 안창국

자본시장국장 박민우

구조개선정책관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 전요섭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 김기한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이주영

한국산업은행

재무관리부문장 주동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기획조정관 고은영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

조사조정국장 남석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 하승철